

연구 분야: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 English zero anaphora as an interactional resource.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8(3), 267-302

오선영\*

이 연구 논문은 영어 화자들(speakers)이 일상 대화에서 영형대명사(zero anaphora)를 사용하는 관례(practice)를 조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특히 그러한 관례를 통해 화자들이 성취하는 상호작용적 과업(interactional work)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영형대명사란 지칭 위치(reference position)가 형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채 비어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과 같은 화제 중심적(topic-prominent) 언어에서 지칭의 표준(referential norm)으로 간주될 만큼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들에서의 영형대명사의 기능은 큰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어의 지칭 관련 문헌에서는 영형대명사는 거의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어 문법에서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가 모두 외현적으로(overtly) 드러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문법서들은 다른 언어에서는 영형대명사로 불리는 것을 “상황적 생략(situational ellipsis)”이라는 이름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적 생략의 해석은 언어적 맥락(linguistic context)이 아닌 언어외적 맥락(extralinguistic context)에 대한 지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Told you so”와 같은 문장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I told you so” 또는 “We told you so”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 다른 맥락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영어에서 이러한 상황적 생략은 전형적으로 문장의 제일 앞부분에서 발생하며 격식을 차리지 않는 언

---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조교수

어 사용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문법학자들은 이러한 예들을 부정확한 영어로 간주하지만, 이러한 생략, 즉 영형대명사는 높은 교육 수준의 화자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있어서는 영형대명사가 한 번도 합법적인 지칭 수단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영형대명사의 분포와 기능, 또는 사용상의 규칙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려는 시도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만일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영형대명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영어 화자들이 언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지칭어를 생략하고 영형대명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영형대명사가 등장하는 구체적인 환경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대화분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talk-in-interaction)을 분석하는 연구 분야로서, 특히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과 이에 사용되는 언어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대화분석에서는 대화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항상 질서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대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어떤 행위(action)를 이루어 간다고 본다. 대화분석 방법론은 현재 언어학, 인류학, 교육학 및 영어교육 등의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친구나 가족 또는 친척 관계에 있는 영어 화자들이 자연적인 환경에서 실제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여 전사(transcribe)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전사는 대화 참여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휴지(pause)의 유무와 침묵(silence)의 길이, 말겹침(overlap), 억양 등까지 상세하게 표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대화 자료에서 영형대명사를 포함하는 발화들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특히 화자가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의 분석은 대화분석의 전통에 따라 연구자의 관점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대화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화자가 영형대명사를 사용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와 청자(hearer)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반응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영어에는 영형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단지 상황적 생략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영형대명사는 영어 화자들이 중요한 상호작용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

하여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자원(resource)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이 논문은 영형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환경을 파악하고, 각 환경에서 영형대명사가 수행하는 행위를 논의하고 있다. 첫째, 영형대명사는 현재 화자가 하고 있는 말이 이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것(resaying) 또는 두 번째로 하는 말(second saying)이라는 사실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영형대명사는 자신이 포함된 현재의 말차례구성단위(Turn Constructional Unit)가 이전의 말차례구성단위에 대하여 지니는 “이차성(secondness)”을 투영(project)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번째 말을 하는 화자들은 첫 번째 말 이후에 결여되었던 청자의 적절한 반응을 이 두 번째 말이 끝난 후에 얻으려는 정향성(orientation)을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 즉, 현재 자신이 하는 말을 두 번째 말로 표시함으로써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말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마련하게 되며, 그 결과 청자로부터 동조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된다. 이처럼 영형대명사는 현재의 말을 다시 하는 말이나 두 번째 말로 표시해 주는 수단이며, 이는 그 말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 타당성(relevance)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화자들은 자신의 말에 대해 청자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말을 발화하게 되며, 청자는 이 두 번째 말에 대하여 곧바로 동조적 반응을 제공해 주는 것을 연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영형대명사를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그 자체로서 주된 행위가 아니라 부차적 혹은 이차적인 행위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현적 지칭 형태를 지닌 선행 말차례구성단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비교할 때, 영형대명사로 시작하는 말차례구성단위에 의해 실행되는 행위의 성격이 이차적 또는 종속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형대명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 간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두 경우 모두 외현적 지칭 형태를 담고 있는 선행 말차례구성단위와 비교하여 영형대명사가 이끄는 말차례구성단위의 성격이 이차적임을 보여준다. 다만 그 이차성이 행위 그 자체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행위의 수준(level)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둘 간의 차이점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두 가지 기능에 덧붙여 2006년에 발표된 후속 논문--“English zero anaphora as an interactional resource II”--에서는 영형대명사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세 가지 더 밝혀내어 분석하였다. 이 세 기능은 삽입 구문(parenthetical insert)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말차례구성단위의 재개, 최대한의 연속성

(continuity) 표시, 그리고 가능한 여러 지칭형태 중에서의 선택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연구 논문은 영형대명사가 다른 언어들에서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그 자체로 체계적인 연구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전에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말할 때 우연히 혹은 무질서하게 발생하는 결과물로 취급되었던 영형대명사가 사실은 영어 화자들이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처음으로 밝혔다는데 있다.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았던 한 학자가 지적한대로, 본 연구의 또 다른 공헌점은 대화에서 연속체(sequence), 행위(action), 그리고 문법형태(grammatical form)가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문법 조직이 부분적으로는 행위-특정적 연속체 수준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매우 흥미로운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ne can suggest that grammatical organization exists in part at the level of action-specific sequence, and the current paper certainly provides fascinating evidence to support this view”). 한편 이 연구 결과는 영형대명사가 담화에서의 다른 연구대상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행위 의미(action import), 즉 그것이 대화에서 달성하는 상호작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분석의 중요한 기본 입장 중 하나는 대화에서 발견되는 어떤 대상이 비록 선형적으로는 전혀 연구의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연구 가치나 기능을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 언어학이나 문법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하찮고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도 실제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그것이 상호작용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휴지나 침묵, 말걸침 등이 전통 언어학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받지 못했지만, 대화분석 연구들을 통해 이것들이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기존 전통 언어학에서 부인했던 영어에서의 영형대명사의 존재와 기능을 새로이 밝혀냄으로써 대화분석의 이러한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추가 증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화분석 분야에 공헌하고 있다.